



이성적 믿음

제이 와이 짐 | 흥성 옮김 | 품을 이루는 사람들 펴냄

6 김두환 (인준대 교수)

과학과 신앙은 조화될 수 없는 것일까?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논의에서 시작
하여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며 학문
적 깊이를 확대 시키는 기독교 변증서이다.

1633년, 그때까지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지식체계
를 뒤엎고, 새로운 지상과 우주의 운동체계를 정립한 갈릴레오
가 종교재판정에 서게 된다. 현대인들은 갈릴레오의 재판이야
말로 종교와 과학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
고 있으며, 17세기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은 신앙과 과학 간 진
쟁의 시작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기독교세력들이
기독교를 폄박하기 위한 한 방편일 따름이다. 1837년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고 난 후, 반기독교세력들은 진화론을 중심으
로 결집하면서, 비과학적이라는 명분 아래 기독교에 대한 본격
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그때부터 반기독교 세력들은 기
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의 대결은 마치 창조론과 진화론
의 진쟁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고, 비과학과 과학의 대결 구
도로 몰아갔다.

그러나 신앙과 과학은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 없는 과학은 질
름밭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팽인과 같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되짚어 봄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대과학의 지평을 열고, 토
대를 마련하고 완성한 근대과학자들을 꼽으라면, 역시 코페르
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등이다. 네 명의 공통점은 새
로운 과학적 사실 발견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만든
분들임과 동시에 신앙의 진하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외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다. 21세기에 들어
와서도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진화론자들이
종교의 비과학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해 원래 진화론자이었던 프레드 호일을 비롯한 과
학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과학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또한, 1990년대부터 펄립 존슨이 주도하는 지적설계운동도 진
화론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탄두자인 제이 와이의 '이성적 믿음'은 무신
론적 과학교육을 받은 청소년 · 청년에게 큰 반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과학을 맹신하는 장년에게 창조 진리를 깨우쳐줌으로
써, 신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
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하신 것이며, 인간들이 이성적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중
성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본서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권하며, 청소년들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필독서이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와 청소년 사역자는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한다.
본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들을 과학이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과학이 가리키는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시하
고 있다. 그래서 1~5장까지의 1부에서는 과학적 변증에 대해서, 6~10장까지의 2부에서는 성경의
진리성과 하나님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주일학교에서 창조신앙의 교육에 관한 좋은 교재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각 장의 요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1장의 '실제에 대한 논증에서는 우연한 일치로 여러 화학적 요소들이 충돌하여 생명을 탄생하게 했
다는 우연론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어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설계론을 설명하던
서, 설계론에 맞서는 다양한 반론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장부터 5장까지는 설계론에 근거하
여, 과학적 사실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2장의 '이주 작은 진자로부터'에서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의 개념에서부터 원자의 결합으
로부터 생명을 주는 분자 화합체의 설명을 통해, 아미노산 결합체인 단백질과 DNA의 필묘한 결합
으로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이 실제로 인하지 않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장의 '실제된 지구'에서는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면서, 신이 실제를
하지 않았다면, 지구에서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기의 구성, 태양에서 나
온 빛, 지구의 오존, 지구의 공전과 자전, 지구의 기울기와 자기장 등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절대로 우연
으로 지구와 생명체가 조성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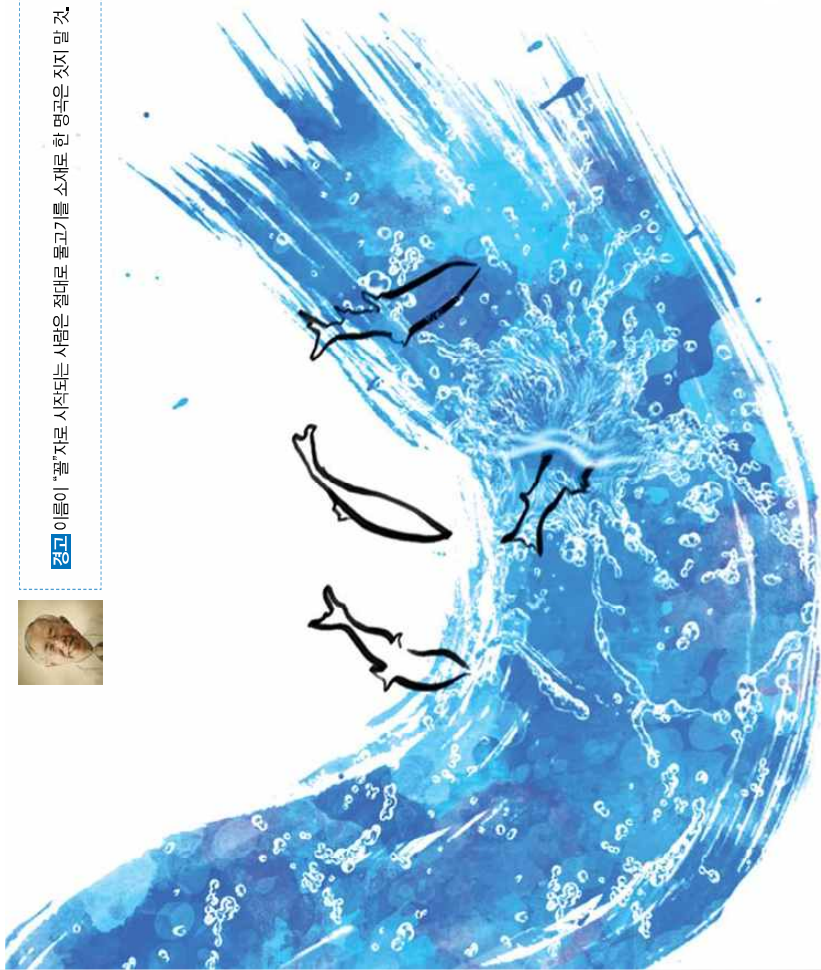
어물전

○○○대통령(어는 대통령인지는 마음대로 상상할 것)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연주회에 초청을 받았다. 음악에 대한 대통령의 식견이 높지 않음을 안 보조관들이 후시 있을지도 모르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비키로 했다. 마침 연주 프로그램에 슈베르트의 <승어>가 들어 있기에 어떤 곡이 가장 마음이 들었는지 기자가 질문하면 그 곡이 가장 좋았다고 대답하러라고 대통령에게 귀뜸했다. "슈베르트"와 "승어"가 다 같은 자음으로 시작되고 꾸밈은 고기란 사실을 기억하라고 힌트도 주었다.

귀빈석에 앉아서 빈쯤 듣고 빈쯤 좋고 하는 동안 연주회는 끝났다. 아나나 다를까, 퇴장하는 길에 한 일간지의 문화부 기자가 다가와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곡이 가장 마음에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야당 당수나 재벌 총수 이들은 기억나는데 슈베르트나 승어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이름이 흥하고 음악 시간에 들은 베토벤이었다. "아- 역시 베토벤의 <승어>가 백미였어!" 대통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킁킁거리자 말을 잘못 했음을 직감했다. "아. 아나야. 내가 착각했어. 베토벤이 아니라 모차르트였지. 모차르트의 <문어>는 역시 역작이란 말이야! 정말 아름다웠지!" ㉞



장고 이름이 "플"자로 시작되는 사람은 절대로 물고기를 소재로 한 명곡은 있지 말 것.



4장의 '생명체의 본질과 구조'에서는 생명체가 되기 위한 5가지의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5장의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서는 자연에서 설계된 생명체의 체내 구조와 습성을 살펴보면서, 진화론의 무용지물과 설계론의 타당성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딱정벌레의 방어구조, 상어의 먹이섭취 습관, 인간의 눈과 눈물의 구성물, 풍생 등을 과학적 증거로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1장부터 5장에 걸쳐, 과학적 변증을 통해 보인 신의 존재가 큰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6장의 '단연 으뜸인 성경'에서는 성경은 구성, 대중성, 생존력, 영향력 등에 있어서 독특한 지적임을 보이고, 특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성경의 유일성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저자는 이 책상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7장의 '성경의 역사적 타당성'에서는 고고학과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고서 검증, 내적 검증, 외적 검증 등의 관점에서 성경이 고대 역사의 다른 어떤 문서보다 역사적 정확성이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 8장의 '기적의 입증'에서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기적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성경에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으로 성경이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문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9장의 '성경의 과학적 진실'에서는 성경에 나온 기적을 초자연적 특성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기적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사건들도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10장의 '창조자의 신진지명'에서는 성경에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 후대에 정확하게 실현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쓰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자는 갈무리하면서,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자가 되도록 주입되었으며, 과학자로서 종교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며, 성경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대한 탐색 및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 해화학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적 자료들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논지가 틀렸음을 보여줌으로, 성경은 과학적인 진리의 말씀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최근에 과학 교과서에 실린 진화론 사제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의 문제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의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세계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해야 한다.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세대일수록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본서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㉞

김두환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이론해물리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비엔에프 테크놀로지 책임 연구원, 중산대학교 신학대학원 (M, PhD), 고려사이버대학 청소년학과(사회복지학과, 인문대학) 물리학과 연구교수, 현)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객원교수 (경제/사회 연구), 현)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부장겸 연구실장(현) 한국통합생명연구원 부원장, 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